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

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차순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Ⅰ 시작하며
- Ⅱ 연구사 검토
- Ⅲ 신라왕릉 중 화장관련기사 검토
- Ⅳ 신라왕경 내 화장묘의 특징
 - 1. 입지
 - 2. 화장묘의 묘주
- Ⅴ 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
- Ⅵ 마치며

2008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1 No. 1

통일신라시대의 화장과 불교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

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차 순 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08. 08. 20 / 심사일자 : 2008. 09. 25 / 게재확정일자 : 2008. 10. 10]

국문초록

신라의 화장묘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결과 화장묘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중국 불교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었고, 화장묘의 형태변화와 인화문의 시문유무 그리고 장골기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화장묘는 묘주의 신분에 따라서 이중형과 단독형으로 구분되며 왕경과 지방에 존재하는 화장묘는 그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장골기인 연결고리유개호는 인화문토기의 시문여부로 볼 때, 8세기~9세기까지 존재했음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9세기대의 연결고리유개호는 원화10년명 화장묘에서 알 수 있듯이 무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

불교신앙의 성행에 따라 704년에 당에서 처음 한역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이 8세기 초에 신라로 전래되자 신라 인들은 장골기를 사용한 화장묘를 조성하거나 바닷가 또는 산에서 산골을 행하던 장례의식에서 사찰 안에 자신과 가족의 복을 구하고 망자의 극락왕생과 다가올 내세를 기원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석탑을 세우는 조탑신앙으로 사후관념과 장송의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분묘로서의 화장묘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소멸하게 되며, 오히려 화장 후 산과 들에 산골을 한 후 사찰에서 망자를 추복하는 제사를 행하는 형태로 장례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화장묘가 가지고 있던 가족의 제사는 석탑의 조성과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통한 조상의 추모와 개인의 발복을 비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횡혈식석실분이나 화장묘와 같은 고분조성이 점차 소멸하게 된 원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화장묘, 장골기, 조탑사상, 무구정광다라니경

I. 시작하며

화장은 고대 인류가 사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장법 중 하나이다. 시신을 불로 태우고 남은 유골을 수습한 후, 일정한 의식에 따라서 전용 장골기에 넣어서 땅 속에 매장하거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장골(藏骨)과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흩뿌리는 산골(散骨)은

화장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장례의식으로 각 모습은 문화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¹⁾.

우리나라에 화장이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와 관련시켜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화장과 관련된 유구가 발견된 시기는 신석기시대부터이다. 특히 경상남도 진주시 상촌리유적의 주거지 안에서 발견된 토기 내부에서는 화장한 인골이 발견되어, 이때부터 화장 전통

이 존재했음이 확인된 바 있다²⁾. 강원도 춘천시 중도 유적에서는 지석묘 내에서 화장한 인골이 출토된 바 있다(崔夢龍 1985). 삼국시대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국가적으로 수용하면서, 많은 문화전통에 변화가 나타나며, 신라 문무왕이 남긴 유조(遺詔) 중 '依西國之式 以火燒葬'이라 하여, 화장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은 가장 보수적인 의례행위인 상장의례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준다. 문헌사료를 살펴보면 신라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 등이 유언에 따라서 화장을 행하고, 그 유해를 동해바다에 산골하거나 좋은 곳에 장골한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와 함께 도입된 서역식 장법이었던 화장이 새로운 장묘의례로 사회에 받아들여진 모습은 백제와 신라지역에서는 발굴된 화장묘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에는 기단식석축의 석곽 안에서 화장을 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앞서 제시한 일반적인 화장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된다³⁾.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성행에 따라 토장과 함께 화장이 이용되었다. 승려의 경우 일정한 의식(茶毘)에 따라서 장례절차가 이루어지며, 수습된 유골과 사리는 사리탑과 부도에 모셔져서 신앙적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왕경이었던 개성 주변에서는 화장묘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지방에서 사망한 관리의 묘를 거주지인 개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옮겨와서 매장한 사례도 알려져 있다⁴⁾. 또한, 지방에서도 나무상자 안에 화장골을 안치하거나 매장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⁵⁾.

화장의례가 당시에 보편적인 장송의례로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화장에 사용되는 연료 즉, 나무의 조

달과 소비에 대한 문제이다. 즉 화장을 하는데 필요한 땀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서 많은 나무가 벌목되면서, 도성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땀나무가 부족할 수 있는 점과 도성 주변의 산과 구릉지의 나무가 사라지고 도성주변이 황폐화되면서 자연 재해에 취약해지고, 홍수 발생시 조절기능이 사라지는 점 등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⁶⁾.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장례법이 장려되면서 화장보다는 목관을 이용한 매장묘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삼국~통일신라 시대의 화장묘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들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화장묘의 입지적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라왕경에서 화장묘의 등장과 소멸과정에 있어서 당대에 유행하였던 불교 사찰건축과 조탑 활동이 신라 화장묘에 끼친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라고분 연구에 있어서 화장묘가 차지하는 의미와 고분의 소멸과정에 있어서 불교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초보적 시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연구사 검토

우리나라의 화장묘 연구는 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매장문화재로 신고가 된 화장묘의 장골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이들 화장묘가 조성된 목적과 배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Iliad)』를 보면, 전쟁에서 죽은 전사들을 장례지내면서 화장을 한 모습이 확인되며, 로마의 베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Aeneid)』에서 병사들을 화장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 query1=b25h2358b)

2 김재현 외, 2001, 「상촌리유적 출토 인골에 대하여」, 『晉州上村里先史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東亞大學校博物館, 2003, 『發掘遺蹟과 遺物』

3 석곽 내부에 시신을 안치한 후 화장을 실시한 사례는 살펴보면 고조선시기의 분묘유적인 중국 리아오닝성(遼寧省) 따리안쓰(大連市) 강상(崗上)유적 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고구려 묘제에서 확인된 화장사례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4 승주군수 오원경이 1189년 10월 27일에 사망하자 11월 13일에 화장을 한 후, 1181년 정월에 개경으로 유골을 운구한 후 4월 16일 귀법사 산기슭에 매장하고 있음을 당시 묘지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2004,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6,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 p.112~113.

5 경주 천북면 물천리 고려분묘군에서는 묘광 내에 나무상자 안에 화장한 뼈를 안치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III-3호묘에서 출토된 중국동전(祥符通寶)에 의해서 11세기경의 분묘로 추정된다.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勿川里 高麗墓群 遺蹟』, p.152~156.

6 강봉원은 경주 북천의 홍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한 바 있다.

姜奉遠, 2005, 「신라시대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新羅文化』 25,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p.337~360.

이들 화장묘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고적조사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수습된 유구들에 대한 성격 문제와 묘주 문제 그리고 신라묘제에 있어서 화장묘와 석실분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에서의 발굴조사 성과와 매장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유물의 증가 등에 힘입어서 화장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조사성과에 대한 폭넓은 고찰이 이루어졌다. 개개 연구자들의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화장묘의 시기별 특징과 묘주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지만, 화장묘 묘제 전반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화장묘의 묘형에 따른 형식구분과 이에 기초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신라고분 안에서 화장묘의 위계적 위치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경주지역의 화장묘를 조사한 아리미츠 쿄이치(有光教一)와 사이토 타다시(齋藤忠)는 경주 지역에 화장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불교의 전래와 문무왕이 화장을 행하라는 유조를 남긴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이때부터 화장묘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경주 충효리고분군을 발굴한 아리미츠 쿄이치는 경주 상수도 여과지 조성예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중 발견된 화장묘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석실분과 화장묘 사이에 친연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대적으로 볼 때 시간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쪽은 석실분에 매장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은 화장묘를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묘 조성방법

의 차이는 묘주의 계급보다는 종교적인 관계에서 나타난 매장방법의 차이로 보고 있다(有光教一 1937).

사이토 타다시는 「新羅火葬骨壺考」에서 중국에서 박장사상이 유포되면서 수 고조가 인수(仁壽) 4년(604년)에 박장을 유조⁷⁾하였고, 당 고조가 검약을 지시하였던 것⁸⁾과 당 태종 정관(貞觀) 10년(636년)에 문덕황후가 박장에 대한 유명⁹⁾을 남기는 등 중국의 박장 풍습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보았다(齋藤忠 1973: 231). 그리고 당시에 발견된 신라 화장묘에 대해서는 산과 구릉의 경사면에서 골호가 발견되는데 뚜껑과 함의 사이에 단단하게 회를 바른 것도 있음을 보고하면서, 드물게는 내부에 유리옥과 활석제 소옥 그리고 수정제 곡옥과편 등과 개원통보가 부장된 사례를 소개하고, 골호의 형태와 문양 등을 개관한 바 있다. 또한 신라 골호는 당의 도자기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서, 신라 왕실의 와기전(瓦器典) 등에서 전문적인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에 자극받아 일반에서도 골호의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齋藤忠 1973: 231).

한병삼의 화장묘 시기분류(韓炳三 1979: 257~259)에서 한병삼은 통일신라시대 토기를 고분 출토 토기와 골호(화장묘) 그리고 안압지의 토기 등 모두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 중 화장묘에 대해서는 출토유물에 대한 형식분류를 통해서 모두 3기로 구분하였다.

한병삼의 연구는 신라 화장묘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서 이후 연구에 있어서 기준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화장묘의

〈표 1〉 한병삼의 화장묘 시기분류 (韓炳三 1979: 257~259)

시기구분		장 골 기	특 징
초기	7C중엽 ~ 말	삼국시대 토기를 이용 일상용기를 사용	탑형골호, 선각문골호, 보주형꼭지부유개발 開元通寶가 출토된 사례 (경주남산 - 파수부소용) 임해전지 골호 3점(개원통보) 중기
중기	8C	기형의 다양화 문양 - 기면 전면에 화려한 인화문 시문	골호의 전성기 / 불교가 국민의 사상을 대표하면서 당문화 수용 : 唐의 彩花文, 貼花文도자기의 영향을 받음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 등 8세기대 왕 - 화장 시유골호 존재 : 황갈색, 황녹색의 유약(鉛釉)후기
후기	9C말 ~ 10C초	기종은 단조로움 월주요청자를 사용함	3종류의 문양대를 교대로 시문함 - 매너리즘에 빠짐

7 『隋書』卷二, 帝紀 第二 高祖下. “... 卽葬公除 行之自昔 今宜遵用 不勞改定 凶禮所須 □ 命周事. 務從節儉 不得勞人”
 8 『舊唐書』卷一, 本紀 第一 高祖. “基服輕重悉從漢制以日易月園陵制度務從儉約.”
 9 『舊唐書』卷五一, 列傳 第一 后妃上. “... 因山而葬 不須起墳 無用棺槨所 須器服皆木瓦 儉薄送終”

〈표 2〉 정길자의 화장묘 시기분류 (鄭吉子 1989)

시기구분		장 골 기	특 징
1기	법흥왕15년(528년) ~ 문무왕8년(668년이전)	안압지 생토층 발굴 : 開元通寶 내장 단경호 일상용기를 사용	慈藏의 화장(650년 ~ 통일직전) 화장 발생이전의 토기기형과 무늬(삼각집선문, 점흙문의 사용)의 전통을 계승 임해전지 골호에서 개원통보 출토(674년 이전)
2기	삼국통일 ~ 8C이전	전면에 인화문을 시문한 토기	문무왕의 유언 - 화장의 성행 인화문 시문의 발달 : 겹반원수직연속문(縱長連屬文), 연주화형문 결합
3기	8C 상반기	석함 내 당삼채 사용	縱孔돌저귀형 맷음고리 부착 합 - 전용 화장골장용 토기 : 청안 출현 뚜껑과 맷음고리의 거리가 서로 떨어짐 唐三彩의 鳥雲文과 유사한 문양 시문4기
4기	8C 하반기	영태2년(766년)명 사리기 공반 외반구연단경호	縱孔돌저귀형 맷음고리 부착 합 - 압인문 시문 인화문 : 지그재그문 뚜껑과 맷음고리의 거리가 서로 붙음
5기	9C~935년	월화10년(815년)명 화장골장용토기 경주남산 삼릉계 출토 화장묘 장골기	縱孔돌저귀형 맷음고리 부착 합 - 압인문 소멸 : 횡침선문만 시문됨 중국 월주요산 쌍이부청자호 뚜껑과 맷음고리의 거리가 서로 붙음

〈표 3〉 정길자의 화장묘 입지구분 안 (鄭吉子 1989)

번호	입지구분	사 례	비 고
1	海中巖	문무왕릉	산골
2	橫穴式石室墳內 火葬墓	경주 충효리고분군 6호분 - 장골기 전 신덕왕릉 - 화장	매장유물 왕릉(묘주) 불명
3	板石四方式火葬墓	경주남산	석곽 내 장골기 안치
4	土壙內 石函埋納 火葬墓	경주 조양동, 화곡리	석함 내 장골기 안치
5	丘陵地帶 地下豎穴 火葬墓	경주 충효동, 경주남산 등	장골기
6	古墳 封土中 火葬墓	경주 충효리고분군 3호분 전 민애왕릉 봉토 발견 장골기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제의유물(?) 장골기 장골기(?)와 제의관련 유물
7	平地 小型豎穴 火葬墓	전 임해전지(안압지) 내 건물지하	진단구(?)
8	古墳群 周邊 火葬墓	울산 화산리고분군	제의유물
9	佛像臺座石 周邊 小形豎穴 火葬墓	경남 산청군 내원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사리기 관련 제의유물

발생시기를 7세기 중엽으로 본 점은 매우 주목되지만,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 중 일부는 화장묘가 아님이 확인된 바 있다(홍보식 2003: 106~107). 또한 장골기로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는 8세기 대의 것이기보다는 9세기 대의 유물이고 상대편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홍보식 2005: 48~51).

정길자는 신라 화장묘에 대해서 발굴조사된 성과와 절대기년자료 그리고 상대편년자료에 기초하여 시기를 5기로 구분하였고, 중국 화장묘와 불탑의 사리용기와 의 관련성을 비교하면서 화장묘의 발생과 국내 도입 그

리고 조성 등에 대한 일련의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묘의 입지에 대해서 〈표 3〉과 같이 구분하였지만, 일부 자료는 그 자체로 볼 때, 화장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석함과 (내·외)장골기의 조합관계로 장골기의 조합을 구분한 점은 중요하다¹⁰⁾.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길자의 구분 안은 화장묘의 입지를 구분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화장묘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분 내 제의행위와 관련하여 매납된 유물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안압

10 정길자의 연구 이후 이루어진 화장묘 관련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석함의 유무, 장골기의 내함과 외함의 구성유무, 단독형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지에서 출토된 진단구와 산청 석남사지 석조비로자나 불 대좌석 앞에 매납된 인화문토기 호는 화장묘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유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의 불교수용과 화장장골기의 발생문제(姜仁求 1979)와 중국 승려들의 화장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화장의 수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본 점은 우리나라에서 화장묘가 출현하게 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鄭吉子 1988). 불탑에 사리기를 봉안하는 방법 역시 중국에 유학한 승려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¹¹⁾ 화장묘의 수용도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사리 신앙의 전래와 조탑사상에 따른 사리구의 형태와 종류, 제작기법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장골기와의 관련성을 주목한 점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출토품보다는 전세품에 대한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은 화장묘에 사용된 장골기와 석실분에 부장된 유물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며, 장골기의 편년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모리모토 토오루(森本徹)는 한국과 일본의 화장묘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연구사, 상호 관련성, 불교와의 관계, 장법 및 특징 등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다(森本徹 1998). 이에 따르면 한국(백제, 신라지역)의 화장묘는 토기를 장골기로 사용하였고 묘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묘지석이나 묘비가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금동제 용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장골기가 사용되며 묘지나 묘비가 확인된다고 하였다(森本徹 1998: 30). 한편 초기 화장묘의 입지에 대해서는 고분과의 관

련성에 주목하여 기존에 조성된 고분군 안에 축조되다가 점차 생활지역, 즉 도성 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하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통일기에는 불교시설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부장품 역시 희박한 박장을 취하고 있고 화폐가 매납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백제와 신라의 화장묘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개원통보는 중국화폐의 입수과정을 생각해 볼 때, 묘주의 신분이 일반민이 아님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모리모토는 화장묘에 부장된 화폐의 성격을 부장품보다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고(森本徹 1998: 32), 일본에서는 진단구¹²⁾와 태함¹³⁾ 안에 화폐를 매납한 사례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여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사리구 중에서 상평오수(常平五銖)¹⁴⁾ 2점이 확인되며,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구에서도 상평오수 1점이 출토된 점을 고려한다면, 동 시기에 있어서 양자 사이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또한 안압지 내 건물지 하층 진단구에도 개원통보를 매납한 모습이 확인되며, 개원통보의 모조품을 화장묘 안에 부장한 사례¹⁵⁾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폐의 부장을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중국 화폐(개원통보)를 입수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모리모토가 사례로 제시한 신라의 초기 화장묘 유구는 대부분 진단구나 제의와 관련된 매납유물로 추정되므로 그의 주장처럼 화장묘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자유로웠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라왕

- 11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 조를 보면, 당에서 돌아온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황룡사 9층 목탑이 조성되는데, 각 층마다 소탑과 다라니 경을 봉안함으로써 신라 주변의 九夷(1층 日本, 2층 中華, 3층 吳越, 4층 托羅, 5층 鷹遊, 6층 靺鞨, 7층 丹國, 8층 女狄, 9층 獺)를 굴복시키고 九韓이 신라에 조공을 바치기를 기원한 점을 들 수 있다.
- 12 일본 나라의 후지하라교(藤原宮) 대극전원(大極殿院)의 남문에서 출토된 진단구는 토기(파수부 수병) 안에 水晶 원석과 富本錢 9매를 넣은 채 매납한 것으로, 추정 매납연대는 691년 이후이다.
奈良文化財研究所, 2008, 『大極殿院南門の調査-第148次』, 『奈良文化財研究所 紀要』 2008, p.58~69.
- 13 平城京 右京 八條一坊十三坪·十四坪에 대한 발굴조사 중 SX1535호 태함 내부에서 화동개진(和同開闔) 5매가 확인된 바 있다.
奈良文化財研究所, 1989, 『平城京右京八條一坊十三坪·十四坪發掘調査報告』, 『奈良文化財研究所 學報』 第46冊.
奈良文化財研究所, 2004, 『平城京出土 古代官錢集成 I』, 『奈良文化財研究所 史料』 第64冊, pp.94~95.
- 14 북제(北齊: 550~577년)에서 주조한 동전으로 24년간(553~577년)만 주조되어서 유통되었다. 북제의 상평오수는 『북제서(北齊書)』 제기(帝紀) 제4에 의하면 문선제(文宣帝) 천보(天保) 4년(553년) 봄 정월 기축일(己丑)에 새로운 동전을 주조케 하니, 상평오수(常平五銖)라는 글을 새겼다. (乙丑 改鑄新錢 文曰常平五銖)라는 기사가 있어서 동전의 주조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수서(隋書)』 식화지(食貨志)에는 "문선제가 선양을 받은 뒤에 영안오수(永安五銖)를 폐기하고 새로이 상평오수를 주조하니, 그 무게는 동전에 쓰인 문구(五銖)와 같았다"고 적었고, 이후 "북제가 멸망하자 마침내 (상평오수의) 통용이 금지됐다."라고 하여, 사용금지 연대가 확인된다.
- 15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경주 나원리 출토 화장묘(慶州 1796)는 보주형 꼭지가 붙은 연결고리유개호로 동체에 선문만 장식되어있다. 출토된 개원통보(慶州 1797)는 지름 2.4cm로 방각은 원형으로 투공되어 있고, 동전 면에는 음각으로 글씨를 썼다.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 -, p.149, No.333.
국립중앙박물관, 2003, 『통일신라』, p.242, No.251 참조

경지역에서 발견된 화장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왕경 주변의 산록에 위치하기 때문에 왕경 내부에 화장묘의 조영을 규제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홍보식 2007: 80). 그리고 모리모토가 가야와 백제지역의 화장묘로 제시한 사례들 역시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들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야와 백제지역의 화장묘 사례에 대해서 논한 점은 받아들여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화장묘가 등장한 시기는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된 700년 승려 도우쇼우(道昭)의 화장기사와 출토자료로 707년의 文忌寸□麻呂¹⁶⁾ 묘지와 威奈眞人大村의 묘지를 최고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일본에서 출토된 묘지 자료의 연대는 대

부분 8세기 전반에 집중되는 모습이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編 1979).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화장묘에 나타난 차이점은 결국 양국 화장묘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홍보식 2007: 79). 하지만 최근 신라지역에서도 화장묘의 묘지석으로 추정되는 금석문 자료가 확인된 점¹⁷⁾과 염거화상(廉居和尚)의 부도탑지¹⁸⁾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묘지석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장묘와 공반유물의 출토경향을 지켜보아야 할 점이 많다.

홍보식은 앞서 이루어진 제 연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장묘에 사용된 장골기에 대한 일련의 편년 작업을 추진하였다(홍보식 2003, 2005, 2007a, b).

〈표 4〉 홍보식의 화장묘 구분 (홍보식 2007a)

화장묘 유형		구 조		조사사례
I (二重型)	石棺型	1 형식	할석으로 쌓은 석관 안에 장골기를 매납한 구조	경주 동천동 산13번지 화장묘
		2 형식		석장동고분군 - 학생복지회관부지 61호분
	石函型	방 형	타원형 또는 방형 수혈에 석함을 넣고 그 안에 장골기를 안치한 후 석제 뚜껑을 덮음	경주 조양동 화장묘
		횡타원형		경주 내남면 화곡리 화장묘
		구 형		경주남산
		종타원형		
	石穴型		자연암반에 흠을 파고 그안에 장골기를 안치함	경주이씨 시조단강지 자장울사 (646년)
	土器型	A1	연유도기	경주남산 (경주박 本6143, 6144) 화장묘
		A2	외용기 - 원저호 + 인화문토기 내용기 - 호 + 중국도자기 사용	경주 석장동 동국대학교 구내 화장묘
		B	몸체에 2, 4개의 고리가 부착된 연결고리유개호	
C		큰 합 - 외용기, 내부에 소형 유개합	공주, 부여 등 충청도지역에서만 발견됨	
石棺型			동국대학교 구내 학생복지관부지 62, 73호	
II (單一型)	土器型	盒形	왕경과 지방 모두 확인	
		□形	원을 장골기로 사용함	진주 무촌리 E, F호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 192-37 유적
		甕形	옹을 장골기로 사용함	진주 무촌 1丘166호, 2丘48호 고성 송학동 1a-4호 청동 사촌리유적, 김천 모암동유적 경산 옥산동 화장묘
		壺形	연결고리유개호	원화10년명 화장묘 경주 석장동 5호 화장묘 진주 무촌리 C호
	土壙型		원형 또는 타원형 수혈에 뼈를 안치함. 뚜껑 - 토기, 기와, 돌, 나무 등	공주 정지산 18호 진주 무촌리 G호 화장묘

16 묘지명은 壬申年將軍左衛士府督正四位上 文□麻呂忌寸慶雲四年歲次丁未九月廿一日 卍로 직위, 이름, 사망일이 기록되어있다.

17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건령(乾寧) 2년(895년)명 묘지석은 이러한 가능성을 알려준다. 다만 이 묘지석이 화장묘의 것인지 석실분 내에 안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朴方龍, 2000, 「乾寧二年銘墓誌에 對한 考察」, 『考古歷史學志』 第16輯 - 丹雪李蘭暎博士停年紀念論叢 -, 東亞大學校博物館, pp.243~252.

18 會昌四季歲次甲子 季秋之月兩旬九日 遷化, 廉居和尚塔. 去釋迦牟尼佛入涅槃, 一千八百四季矣. 當此國 慶曆大王之時.

특히 8세기의 화장묘 장골기로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에 대한 형식 분류 결과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8세기말~9세기의 장골기로 보아야 하며, 인화문 역시 9세기까지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홍보식 2005: 52). 하지만 경주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 호석 주변에 매납된 유물을 살펴보면 인화문이 시문된 토기는 7세기말에서 8세기초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宮川禎一 1988, 1989, 1993, 2000), 이후 시기부터는 대체로 무문에 횡선문이 시문되고 있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05). 또한 호석 주변에 매장된 화장묘(유개호)는 호석 보강토를 파고 축조된 유구로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에 있어서 가장 늦은 단계에 매납¹⁹⁾되었으므로, 9세기까지 인화문이 신라토기에 나타난다는 의견은 의구심이 든다.

한편 홍보식은 화장묘의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중형과 단일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장골용기의 재질에 의해서 세분을 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신라 화장묘는 이중형(I)과 단일형(II)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석함, 석관, 석혈(巖壙), 토기형, 토광형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러한 매납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9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용 장골기가 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왕경지역에 거주한 귀족층이 중국에서 수입된 당삼채, 청자 등을 전용 장골용기(연결고리유개호, 연유도기)로 사용한 점에 착안하여 왕이나 귀족 그리고 승려 등과 같이 이러한 사치품을 입수할 수 있었던 당시 최고계층(진골)을 이들 화장묘의 묘주로 추정하였다.

또한 화장묘의 장골기는 불교 신앙에 따라서 사리용기의 형태를 본뜬 모습으로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홍보식 2007a: 91~95), 지방에 조성된 화장묘는 이중형도 있지만 대부분 단일형이며 장골기는 일상 생활용기를 전용해서 사용했음을 주장하였다(홍보식 2007b: 327~339). 그러나 왕경지역에서 조사된 화장

묘를 살펴보면 상위계급의 화장묘인 이중형 화장묘는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고, 일반민의 화장묘로 추정되는 단일형 화장묘는 왕경 주변의 구릉부에 군집을 이루고 존재했음이 분명한데, 단일형 화장묘 군집의 유무에 따라서 왕경과 지방을 구분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창호는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등장과 소멸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서 화장묘가 조성된 시기는 주로 8세기이며, 당시 신라에 들어온 불교 교단인 교종(법상종)과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9세기대의 표지유물인 덧띠무늬토기, 줄무늬토기, 편호 등이 횡혈식석실분의 부장품과 화장묘의 장골기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는 화장하여 산골하는 장례법이 성행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후시기에 고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²⁰⁾에 대해서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金昌鎬 2006). 하지만 9세기 대에 조성된 화장묘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분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김호상과 김재현은 경주 석장동고분군에서 확인된 화장묘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구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장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金鎬鎬·金宰賢 2005: 308). 김호상은 경주지역의 화장묘에 대해서 장법과 구조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장골형태는 모두 6가지로 분류하였다.

김호상의 분류는 신라왕경 및 그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화장묘에 대해서 유골의 처리방법과 매납방법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II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한 횡혈식석실분을 석곽으로 재이용하여 화장묘를 축조한 경우이므로, 횡혈식석실분에서 나타난 추가장으로 보기는 어렵다²¹⁾. 특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배수로 부지에서 확인된 석실분의 경우 묘도가 폐쇄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5호 화장묘는 1호 횡혈식석실분의 시상을 파괴하고 장골기를 안치한 모

19 경주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은 묘도의 개축으로 볼 때 최소한 2~3회에 걸쳐서 추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최종 묘도 폐기 시 유입된 중국제 해무리급 청자편으로 볼 때, 고분의 최종 폐쇄시점은 8세기말~9세기 초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석 보강토를 파괴한 화장묘의 연대는 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20 김창호는 신라왕경 내 고분이 조성된 사례 중 9세기에 해당되는 고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 흥덕왕릉, 전 진덕왕릉, 전 민애왕릉 출토 '원화10년명 화장묘' 뿐이며, 이외에 9세기 대 고분 또는 화장묘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이 시기를 무고분의 시대로 보았다. 金昌鎬, 2003,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사의 시대구분」, 『仁荷史學』 10, 仁荷歷史學會, pp.3~18.

21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횡혈식석실분의 석실 내부에 석벽을 쌓고 조선시대의 목관묘가 축조된 사례가 충주 단월동고분군에서 확인된 바 있다. 建國大學校 博物館, 1994, 『忠州 丹月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建國大學校 博物館, 1995, 『忠州 丹月洞古墳群 2次發掘調査報告書』

〈표 5〉 신라왕경 소재 화장묘의 유형 (金鎬詳·金宰賢 2005: 298)

장법	유형	유형 설명	조사 사례
藏骨	I	석곽·석판형의 외부구조물을 갖추고 내부에 골장용기 안치	동국대학교 학생복지관 부지 화장묘 4기 동천동 산13번지 출토 화장묘 경주남산(일제강점기·경주박물관 유물 소장)
	II	석실분 내부에 골장용기 안치	동국대학교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 1기
	III	토광에 석함을 매납	경주 동천동 출토 청동방형사리함 조양동 성덕왕릉 남쪽 300m (1973.4.8) 경주 내남면 화곡1리 산24번지 (1988.2)
	IV	토광에 골장용기를 매납	동국대학교 학생회관부지 화장묘 2기 경주황성동 545번지 출토 화장묘 안압지 발굴 화장용골장기 토기 2기 *충효리고분군 주변 및 경주남산 일원
	V	봉토에 골장용기를 매납	충효리 3호분 봉토 화장골장용토기 진 민애왕릉 봉토 화장골장용토기 황남대총 북분 봉토 화장골장용토기 경주 천마총 봉토 화장골장용토기
	VI	암반이나 바다를 이용	문무왕릉 경주 이씨 시조탄강지 (소금강산 광입대)
散骨	VI	동해바다 또는 산천 (산골을 실시한 문헌기록)	효성왕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왕 (삼국유사 왕력) 경명왕 (삼국유사 왕력)

습²²⁾이므로 고분과 화장묘 사이에는 상당한 시기차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I안은 분류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토된 화장인골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묘주의 성별과 연령을 밝힌 점과 유해를 1,200℃이상의 고온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음을 규명한 점은 향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金鎬詳·金宰賢 2005: 308). 특히 고온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지역에 화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森本徹 1991: 1992).

석병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문무왕에서 경애왕에 이르는 26명의 신라왕 중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기록과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화장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화장묘 사례 16개소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신라 화장묘의 변화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

안은 홍보식이 제안한 분류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단일형(I형), 이중형(II형)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인화문 연결고리유개호의 연대에 대해서는 8세기대로 한정하는 듯하고, 9세기의 화장묘는 무문양의 연결고리유개호와 유개합 등을 열거하면서, 중국자기(당삼채)와 연유호의 사용 그리고 불교(교종)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石秉哲 2007).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화장묘 연구는 장골기의 매납형태와 화장묘가 입지한 지형적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화문토기를 장골기로 이용한 경우 그 하한연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묘 내에 개원통보 등 중국동전이 부장된 사례를 통해서 묘주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고, 십이지신과 관련된 유물이나 글자의 존재를 통해서 당시 화장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위개념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

22 경주 석장동고분군 중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 내 1호 석실분 내부에서 출토된 5호 화장묘에 의거해서 형식분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하지만 석장동유적 5호 화장묘는 1호 석실분이 파괴된 후에 이를 재이용하여 축조된 사례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게재된 도면과 출토상태를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1호 석실분의 시상부를 파괴한 5호 화장묘는 조성시기가 다른 별개의 유구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96, 『錫杖洞遺蹟』, p.2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발굴유물특별전』, p.79.

〈표 6〉 석병철의 화장묘 시기분류 (石秉哲 2007)

시기구분		장 골 기	특 징
1기	도입기 7C초 ~ 8C초	동천동 산13번지 화장묘 황남대총, 천마총 봉토 출토 토기 갑산리 화장묘 충효동고분군 구릉일대 경주남산	수혈토광에 장골기 안치 (I A) 석곽형 외부시설 안에 장골기 안치 (II A) 장골기 - 유개함, 파수부호 (일상용 토기) 인화문 - 삼각집선문, 원호문 → 수직형문의 종장연속문 (A수법)
2기	성행기 8C초 ~ 말	조양동 석함 동천동 출토 청동사리함 석장동고분군	다양한 형태 화장묘 (I A, II A, II B, II C) 연결고리유개호 사용 인화문 - 종장연속문 (B수법 → C수법), 횡장연속문, 具象文 (雲氣文, 鳥文 등) 문자 - 十二支, 당삼채, 연유호 사용
3기	쇠퇴기 9C초 ~ 중엽	전 민애왕릉 원화10년명 장골기 내남면 화곡리 화장묘 석장동 학생회관 부지 화장묘 경주남산 배동	화장묘 형태 (I A, II B, II C) 화장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음 蓋의 비율이 줄어들음 중국제 청자의 사용 인화문 소멸 - 無文 연결고리유개호 사용 도제 십이지신상 부장

리고 신라왕경에는 이중형 화장묘의 경우 단독으로 입지한 사례가 많으며, 단일형 화장묘는 군집을 이룬 사례가 많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주로 단일형 화장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장황하게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화장묘의 출현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9세기 이후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처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라 화장묘의 소멸과정에 어떤 사회적 원인이 작용하여 고분의 조성이 줄어들고, 화장이 증가하지만 장골기를 사용한 화장묘의 소멸과 산골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당대 불교신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불경의 전래와 당탑조성에 따른 사회 경제력의 변화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과 시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II. 신라왕릉 중 화장관련기사 검토

신라는 박혁거세 거서간부터 경순왕까지 모두 56명의 왕과 여왕이 즉위하였다. 이들 신라왕들의 왕릉에 대해서는 일부 문헌사료에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저도 분명하게 위치를 비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²³⁾. 하지만 여러 문헌사료에 기록된 신라왕들 중에서 화장을 한 왕들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일기 이후인 신라하대의 왕들 중 큰 병을 앓았거나 후손이 없는 경우에 사찰에서 화장을 하고 산골 혹은 장골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왕들 중에서 화장을 실시한 왕은 모두 8명으로 전체의 14.2%에 불과하지만 모두 통일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일정한 장례문화로 정착되어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유언을 통해서 화장을 실시한 경우가 많은데, 사이토 타다시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 수·당의 황실에서 검약하기 위해서 박장을 실시하면서 행해졌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신라에 전해지면서 문무왕 이래로 계속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齋藤忠 1973: 231).

하지만 신라는 6세기말~7세기경부터 왕경 주변의 구릉지에 황혈식석실분이 축조되면서 하나의 무덤을 모든 가족들이 사용하는 묘제상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추가장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직석목곽분과 달리 고분이 차지하는 토지수요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서 김창호는 황혈식석실분의 축조에 따라서 대형고분을 축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

23 신라왕릉의 위치비정과 관련된 제 문제점은 이근직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李根直, 2006, 『新羅 王陵의 起源과 變遷』,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博士學位論文.
24 삼태성의 위치는 큰 곰자리의 앞발과 뒷발에 해당한다.

<표 7> 신라 왕 중 화장관련 기사

왕/화장연대	관 련 기 사	장법	비고
문무왕 681년	『삼국사기』 권 제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하 “二十一年…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群臣以遺言葬東海口大石上…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21년 가을 7월 1일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문무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어귀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 죽고나서 10일이 지나면 고문 바깥 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火葬 ↓ 東海 散骨?	散骨?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辛酉年 治二十年 陵在感恩寺東海中” 신유년(661)에 즉위하여 20년간 다스렸다. 능은 감은사 동쪽 바다 중에 있다.	不明	
효성왕 742년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효성왕 “六年 夏五月 流星犯參大星 王薨 諡曰孝成 以遺命 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6년 여름 5월에 유성이 삼대별 ²⁴⁾ 을 침범하였다. 왕이 죽어 시호를 효성이라 하였다. 유언에 따라 그 널을 법류사 남쪽에서 태우고, 그 뼈를 동해에 뿌렸다.	火葬 ↓ 東海 散骨	散骨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丁丑入 理五年 法流寺火葬 散骨東海” 정축년(737)에 즉위하여 5년간 다스렸다. 법류사에서 화장하여 뼈를 동해에 뿌렸다.		
선덕왕 785년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선덕왕 “六年 春正月…是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死後 依佛制燒火 散骨東海 至十三日 薨 諡曰宣德” 6년 봄 정월에 왕이 병으로 자리에 누워 오랫동안 낫지 않았으므로 조서를 내려 말했다. “… 나 죽은 뒤에는 불교 법식에 따라 불태워 뼈를 동해에 뿌려라.” 13일에 이르러 죽으니 시호를 선덕이라 하였다.	火葬 ↓ 東海 散骨	散骨
원성왕 798년	『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원성왕 “十四年 冬十二月 二十九日 王薨 諡曰元聖 以遺命 舉柩燒於奉德寺南” 14년 겨울 12월 29일 왕이 죽어 시호를 원성이라 하였다. 유언에 따라 널을 들어 봉덕사 남쪽에서 불태웠다.	火葬	藏骨?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乙丑立 理十四年 陵在胡寺 今崇福寺也 有致遠所立碑” 을축년(785)에 즉위하여 14년간 다스렸다. 능은 고사에 있으니 지금의 승복사이며, 최치원의 비석이 있다.	不明	不明
진성왕 897년	『삼국사기』 권 제11 신라본기 제11 진성왕 “十一年…冬十二月乙巳 王薨於北宮 諡曰眞聖 葬于黃山” 11년 겨울 12월 을사에 왕이 북궁에서 죽었다. 시호를 진성이라 하고 황산(黃山)에 장사지냈다.	不明	不明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丁未立 理十年 丁巳遜位於小子孝恭王 十二月崩 火葬散骨于牟梁西岳 一作未黃山” 을미년에 즉위하여 10년간 다스렸다. 12월에 돌아가시니 화장하여 뼈를 모량 서악 혹은 미황산에 뿌렸다.	火葬 ↓ 散骨	散骨
효공왕 912년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 효공왕 “十六年夏四月 王薨 諡曰孝恭 葬于師子寺北” 16년 여름 4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효공이라 하고 사자사 북쪽에 장사지냈다.	不明	不明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丁巳立 理十五年 火葬師子寺 骨葬于仇知堤東山脇” 정사년(897)에 즉위하여 15년간 다스렸다. 사자사 북쪽에서 화장하고 뼈는 구지제 동쪽 산허리에 두었다.	火葬 ↓ 藏骨	藏骨
신덕왕 917년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 신덕왕 “六年 秋七月 王薨 諡曰神德 葬于竹城” 6년 가을 7월 왕이 죽었다.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죽성에 장사지냈다.	不明	不明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壬申立 理五年. 火葬藏骨于箴峴南” 임신년(912)에 즉위하여 5년간 다스렸다. 화장하여 뼈는 잠현 남쪽에 안장하였다.	火葬 ↓ 散骨	藏骨
경명왕 924년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 경명왕 “八年 秋八月 王薨 諡曰景明 葬于黃福寺北.” 8년 가을 8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경명이라 하고 황복사의 북쪽에 장사지냈다.	不明	不明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제1 왕력 “丁丑立 理七年 火葬皇福寺 散骨于省等仍山西.” 정축년(917)에 즉위하여 7년간 다스렸다. 황복사에서 화장하여 뼈를 생등양산의 서쪽에 뿌렸다.	火葬 ↓ 散骨	散骨

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²⁵⁾ 수많은 인력들이 군(일반 병사)과 새로운 건설사업(인부)에 조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金昌鎬 2006: 70). 하지만 금공기술자나 제철 공인집단과 같은 전문 기술자들이 묘제의 변화에 따라 일순간에 직종이 변경된다는 주장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들 기술자들은 당시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불교사원의 법당과 불상 그리고 필수품을 제작하는데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초기 신라공인들이 황룡사 9층목탑 등을 건축하면서 나타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에서 공인을 초빙한 사실²⁶⁾은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신라고분에 있어서 박장이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경주 서악동 석침총을 비롯한 시내 및 외곽지역에 황혈식석실분이 조성되면서 박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황혈식석실분이 조성되던 시기에 함께 존재했던 화장묘도 이러한 박장풍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판단되지만, 일부 화장묘의 장골기를 살펴보면 당시에 쉽게 입수하기 곤란한 중국제 도자기(당삼채, 청자 등)를 장골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른 부장유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사치품을 소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신라사회의 귀족층이나 승려계층이므로 화장묘 조성에 있어서 신분적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신라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장형태는 동해바다에 직접 산골하는 경우와 별도로 조성된 지역에 전용 장골용기를 묻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화장묘 주변에 묘주의 신분을 반영한 납석제 또는 토제십이지신상 등이 부장된 사례도 보고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묘주를 왕 혹은 추증된 왕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²⁷⁾.

그러므로 정교하게 치석된 석함 내에 중국제 당삼채와 청동제 접시를 장골기로 사용한 조양동 화장묘는 당대 최고제품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신라왕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표 7>에 나타난 신라왕들 중에서 원성왕(798년 졸)으로 보는 의견에 찬동할 수 있다(홍보식 2007a: 100, 2007b: 339). 하지만 원성왕의 경우 『삼국사기』의 “14년 겨울 12월 29일 왕이 죽어 시호를 원성이라 하였다. 유언에 따라 널을 들어 봉덕사 남쪽에서 불태웠다.”라는 기사와 『삼국유사』의 “을축년(785년)에 즉위하여 14년간 다스렸다. 능은 곡사에 있으니 지금의 승복사이며, 최치원의 비석이 있다.”라는 두 기록으로 볼 때, 조양동 화장묘를 원성왕릉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왕릉이 승복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장골기를 사찰에 봉안한 것인지 아니면 사찰 주변에 묻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화장한 후 유골을 장골한 후, 위패를 승복사에 모셨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양동 화장묘는 원성왕릉 보다는 왕에 준한 인물, 혹은 진골 이상의 귀족의 화장묘로 생각되며 향후 신라왕의 화장묘가 발견될 경우 어떤 모습일지 추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장묘의 위치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여타 왕릉처럼 왕릉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찰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승복사와 원성왕과의 관련성 여부는 주목된다.

조양동 화장묘는 그 장골기의 형태와 석제 외함의 특징 등으로 볼 때, 묘주의 신분은 진골 이상으로 판단되며, 화장묘의 석제 외함의 형태변화를 분류한 홍보식의 지적처럼 사각지붕을 가진 방형석함에서 원형석함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당시 불탑 내 사리구의 형식변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홍보식 2007a: 94).

25 김창호는 황혈식석실분의 축조가 이루어진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보고, 기존에 적석목곽분을 축조하고 막대한 부장품을 만들던 공인집단이 해체된 후, 군대의 병사나 새로운 건설사업에 필요한 인부로 고용되었음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무덤 축조에 드는 비용이 1/100~1/10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당시의 긴박한 정치상황과 전쟁준비에 도움을 주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26 황룡사 9층목탑을 건설할 때 백제 장인 아버지를 초빙한 사실은 당시의 신라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27 경주 용강동고분(1986,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조사)의 경우 석실 내부에서는 다량의 토용과 청동제 십이지신상이 출토되었는데, 외호석에 대한 조사결과 석실을 축조한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면석을 사용하여 외호석을 축조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석실규모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추증된 왕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전 김해 진례출토 석관의 외면에 십이지신이 조각된 것을 근거로 왕이나 왕족으로 보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신라하대에 십이지신이 조각된 사례를 살펴보면 석탑의 기단부, 석등, 부도, 비석 등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십이지신의 유무로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보다는 시대상 속에서 십이지신의 표현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金英夏, 1987, 『金海 進禮 출토의 十二支神이 새겨진 石棺』, 『古文化』 第, 31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3~16.

다음으로 화장절차를 살펴보면 들판이나 절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동해바다에 산골하거나 산기슭에 장골을 한 사례가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장송의례 중 화장절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법류사, 황복사 등과 같은 사찰 안에서 화장이 행하여진 점을 고려한다면, 왕의 사망 후 궁이나 사찰 안에 마련된 빈전에 일정기간 시신을 안치한 후²⁸⁾ 화장을 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왕의 시신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구하고, 화장 시까지 지키고 관리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헌기록을 보면 왕이 승하하자 왕비가 절로 출가하는 내용이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례의식 전반에 불교적 의식이 중심으로 자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장의례 역시 사찰의 내부 공간 또는 바깥에 마련된 특정 장소를 사용했고,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을 잘게 부순 후 산골을 하거나 장골용기에 안치했다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장례의식은 사찰의 승려가 주관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유골을 산골하거나 장골기에 안치하고 특정장소에 매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왕실에서 담당했다고 추정된다.

화장된 왕의 유골을 안치한 장묘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해바다-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승복사-원성왕, 모량리 서악(혹은 미황산)-진성왕, 사자사 북쪽 또는 구지제 동쪽 산허리-효공왕, 죽성 혹은 잠현 남쪽-신덕왕, 황복사 북쪽 또는 생등잉산의 서쪽 등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초기에는 동해바다에 산골을 하다가 점차 경주 주변의 구릉으로 장골지가 정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신라왕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동해바다가 지닌 산골처의 의미를 중시한 초기 모습에서 점차 산골장소가 변화되면서 바뀌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왕의 유골을 전용 장골용기를 사용하여 땅 속에 매장했는지

아니면 사찰에 전용 장골용기를 안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효공왕과 신덕왕 2명은 장골을 했고, 원성왕은 승복사(고사 - 鵠寺) 주변에 장골을 했다고 추정되므로, 모두 3명의 신라왕에 대한 화장묘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혈식석실분이 주류를 이룬 이 시기에 있어서 왕묘로 조성된 화장묘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신라왕릉의 능묘구조를 살펴보면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즉 8세기 이후에 조성된 전칭 신라왕릉을 살펴보면, 외호석에 십이지신상이 부조되거나 입상을 세운 모습이 확인되며, 또한 묘역 바깥쪽에는 판석이나 환조로 조각된 납석제 십이지신상이 매납된 사례²⁹⁾가 확인되고 있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7). 주지하다시피 이들 십이지는 중국 수·당대 벽화 또는 토용에서는 주로 입상으로 확인되며 능묘를 지키는 의미를 가진다(飛鳥資料館 2008: 1~26). 이는 신라가 중국 능묘제도에 출현한 것을 수용하고, 이를 <신라화>한 모습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신라왕릉 중에서 일부는 호석으로 사용된 면석에 십이지신상을 부조로 새겨서 배치하거나, 호석 주변부에 수혈을 파고 매납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장묘에서 확인되는 십이지의 의미는 일부 화장묘 장골기에는 기물 표면에 묵서나 예새로 십이지를 새긴 사례가 확인되는데, 화곡리 화장묘처럼 장골기 바깥에 토제 십이지신상 등이 배치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화장묘 주변에 십이지신상이 출토되거나 또는 장골기의 외면에 글자로 십이지를 표기한 경우³⁰⁾는 당시 무덤을 만들면서 방위개념이 함께 채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묘에 있어서 박장의 풍습은 화장묘가 지난 간소함에서 유래하지만 장골기로 사용된 기물의 차이로 볼 때, 중국제 도자기,

28 신라왕의 장례와 관련하여 문무왕을 제외하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나말여초기에 입적한 승려들의 장례사례를 살펴보면 동진대사(洞眞大師), 원종대사(元宗大師)는 입적 후 다음날, 진철대사(眞澈大師), 보경대사(보경대사), 법경대사(法鏡大師) 등은 입적 후 3일 후 매장을 하였고, 낭원대사(朗圓大師)는 입적 후 5일 후에 석실에 묻었다. 자적선사(慈寂禪師), 낭공대사(朗空大師)는 입적 후 6일 후에 임시로 묻었으며, 징효대사(澄曉大師)는 석실의 서쪽에서 다비를 하여 사리를 얻은 후 6년 뒤에 석분을 만들었고 혜거국사(惠居國師)는 2월 15일에 입적 한 후 3월 8일에 다비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승려들에만 한정시켜서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적한 후 일정기간을 석실에 안치한 후 다비를 행하였다고 추정된다.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 해안.

29 경주에서 십이지신상이 배치된 신라왕릉은 성덕왕릉, 경덕왕릉, 패릉, 흥덕왕릉, 헌덕왕릉, 진덕여왕릉과 김유신묘이다. 이외에도 전 민애왕릉에서는 활석제 십이지신상이, 경주 용강동석실분(1986)에서는 청동제 십이지신상이, 내남면 화곡리 화장묘 주변에서는 토제 십이지신상이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왕릉에 배치된 십이지신상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능지탑지와 황복사지 금당지가 알려져 있다.

30 국립중앙박물관 본 14629는 인화문토기 연결고리유개호로 뚜껑의 상단에 십이지를 음각으로 썼으며, 다른 한 점은 동체부에 십이지를 음각으로 썼다.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 新羅人的 記錄과 筆跡 -, p.68, No.75, p.69, No.76 참조.

금속기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계층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귀족이나 승려들을 제외한 일반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기물을 장골기로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화장묘나 석실분에서는 묘지석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당시 지식인층 사이에 한자가 보급되고 사서가 출판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이한 모습이다. 따라서 분묘를 만들면서 묘지가 사용되지 않는 점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지들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의 기반부에서 진단구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 진단구는 외형상으로 볼 때 화장묘에 사용된 장골기와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토기를 장골기로 사용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단구로 확인되는 각종 유개합 안에서는 유리

구슬이나 철도자와 같은 유물들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토기 내에서 유물들이 확인되는 모습은 일반적인 화장묘와 구분되는 점이다. 한편 일부는 중국 동진인 개원통보가 출토된 사례도 확인되므로, 화장묘에서 중국화폐가 출토된 사례³¹⁾는 당시 행해지던 의례 모습의 하나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IV. 신라왕경 내 화장묘의 특징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나 매장문화재 신고품으로 화장묘가 확인된 사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대략 19건 정도이다.

〈표 8〉에 게재된 유적 외에도 경주지역에서 화장묘가 발굴조사된 사례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해당 유구에

〈표 8〉 경주지역의 화장묘 발굴조사 현황표

番號	調査年度	遺蹟名	火葬墓 型式							調査内容 및 特徴	
			I (二重型)			II (單一型)					
			石槨	石函	土器	石槨	土器	竪穴			
					土壇	巖壇					
1	1930?	경주남산 판석사방 방형 화장묘	●								판석조 석곽 내 장골기
2	1936	충효동 화장묘					●				
3	1957	천군동 건령2년명 지석									895년, 성격불명
4	1960	경주이씨 시조탄강지 (동천동 표암 화장묘?)								●	바위를 파낸 수혈 안에 매납된 토기로 화장묘의 가능성은 낮음
5	1961	경주남산 배동 화장묘			●						내호 - 중국청자
6	1963	보문동 가형토기					●				가형토기 - 장골기?
7	1964	동천동 출토 청동방형사리함 (동천동 화장묘)		●							석함 내 청동방형 용기
8	1973	조양동 화장묘		●							석함, 당삼채 + 청동접시
9	1984	동국대학교 학생회관부지 화장묘 (석장동고분군)			●						인화문토기 뚜껑, 중국제 해무리굽 청자편 (월주요계) 내호의 뚜껑으로 삼음
10	1986	동천동 산13번지	●								석곽 내 장골기와 부장토기
11	1988	내남면 화곡리 산24번지			●						원화10년(815년), 토제 십이지신상
12	1991	용강동 근화여고부지 (용강동고분군)						?			

31 건물 기반부에 매납된 진단구(유개합, 유개소용) 안에 유리구슬(황남동 194-11·12번지 건물지, 서부동 19번지 등), 철도자(황남동 194-11·12번지 건물지), 은판(황룡사지), 청동판(황룡사지) 등이 넣어져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皇南洞 新羅建物址』 - 194-11·12番地 大陵園化粧室 新築敷地-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番號	調査年度	遺蹟名	火葬墓 型式						調査内容 및 特徴	
			I (二重型)			II (單一型)				
			石槨	石函	土器	石槨	土器	竪穴 土坑 巖坑		
13	1993	동국대학교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석장동고분군)					●		무문전을 뚜껑으로 사용 횡형석실분 파괴후 축조	
14	1994	황성동고분군(645번지) 23호묘					●		소옹 1점을 매납	
15	1999	석장동고분군					●			
16	2001	동국대학교 학생복지관 부지 (석장동고분군)	51호					●		유개파수부호
			61호	●						방형석곽, 인화문토기, 인골분석 (성년후반 - 30대)
			62호				●			석곽형 구조
			68호						●	이중호석 내 토광에 장골기
			73호				●			석곽 내 인골 안치, 인골분석 (숙년 - 40~59세)
17	2004	갑산리유적					●		유개합	
18	2005	황성동 906-5번지 석실분					●		유개호, 석실분의 호석보강토 위에 굴광을 만들	
19	2008	송화산 옥녀봉유적					●		2기의 화장묘가 연접, 인화문토기 유개합, 유개완	
소계			3	2	3	2	11	1	1	23기
			8			15				

대한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유적들을 중심으로 신라 화장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입지

신라 화장묘의 입지는 대부분의 경우 양지바른 구릉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구릉 정상부와 같이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 선호된 듯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확인되는 화장묘의 수가 차이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왕경지역에서는 이중형(I형) 화장묘가 1곳에 1기씩 매장되었고, 지방에서는 단일형(II형)의 화장묘가 1곳에 여러 기씩 군집을 이루어서 분포한다고 추정된 의견도 있다(홍보식 2007b: 337). 그러나 송화산 옥녀봉 화장묘³²⁾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계층의 분묘가 아니면 단독적으로 조성된 화장묘가 고유의 묘역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된다. 즉 조양동 화장묘, 화곡리 화장묘, 경주남산 배동출토 화장묘처럼 석함이나 외용기를 사용한 경우는 미

리 묘지로 선정된 지역을 선택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이용문제에 있어서 당시 신라사회에서 왕경 주변의 구릉지에 화장묘를 조성하면서 토지사용 등 일련의 장묘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관리나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형 유개합이나 유개호 등과 같은 일상용기를 장골기로 사용한 일반적인 화장묘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동매장지 주변에 화장묘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주남산이나 선도산 등 시내 주변의 구릉지에서는 화장묘가 발견된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모습은 지방에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화장묘가 단독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군집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묘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기의 화장묘가 한 지역에서 확인되므로,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규제를 받으면서 묘지로 정해진 지역에 화장묘를 조성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군집을 이루는 화장묘군은 지역사회에서 혈연관

32 송화산 옥녀봉 화장묘 유적은 2008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한 화장묘 유적으로 충효동에 위치한 송화산 정상부 동사면에서 2기의 화장묘가 인접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2~3기의 화장묘가 일정범위에서 확인된 사례의 경우에는 화장묘 상호간에 있어서 시기성과 관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부지 출토 화장묘에서 알 수 있듯이 월주요계 해무리굽 청자완의 파편을 재이용하여 화장용 장골기 내호의 뚜껍으로 삼은 사례처럼, 장골기의 제작연대와 매납연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장골기로 사용된 토기 및 자기의 하한연대를 비교해야 분명한 화장묘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일형(Ⅱ형) 화장묘의 경우에는 일부 전세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의 생활용기가 바로 장골기로 활용되므로, 연대적 오류는 이중형 화장묘보다 낮을 것이다. 하지만 원화 10년명 화장묘와 같이 절대연대가 명기되거나 안압지 건물지 하층에서 확인된 진단구처럼 명확한 편년자료를 통해서 화장묘 장골기에 대한 편년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화장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편년이 만들어질 것이다.

2. 화장묘의 묘주

경주지역의 화장묘는 그 구조적 특징에 있어서 이중형(Ⅰ형)-석곽형 2기, 석함형 2기, 토기형 3기, 단일형(Ⅱ형)-석곽형 2기, 토기형 11기 이상, 토광형 1기, 암광형 1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화장묘의 특징은 먼저 석함 등과 같은 외부용기의 존재유무와 내부용기의 재질로 구분된다.

신라왕들의 화장관련기록을 살펴본 결과 화장이 이루어졌지만 장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므로, 출토된 화장묘의 장골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중형(Ⅰ형) 화장묘에서 석함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출토되어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포함시켜도 그 수는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화장묘에 사용되는 금속제 용기, 납석제 용기, 연유도기, 중국제 도자기(당삼채, 청자, 백자 등)는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민이 쉽게 입수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왕궁, 관청, 사원과 일부 귀족층이 향유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리고 화장묘의 외함인 석함도 돌을 치석하여 제작해야 되므로, 단순하게 토기만 사용하는 화장묘와는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다양한 공인집단(석공, 토기제작공)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물품을 입수할 수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 사이에는 일정한 신분적 제약과 경제적인 제한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사회에 존재한 신분제약에 따른 기물이용 제한문제는 『삼국사기』 직관조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신분제에 따른 기물 사용의 제한문제는 화장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신분 구분을 보여주며, 비록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장묘를 안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송의례 행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황혈식석실분의 묘주처럼 화장묘의 경우에도 분묘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장된 묘주의 인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성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시설의 온도 그리고 고분에 나타난 위계 혹은 신분과 계급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화장묘 주변에서 화장시설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서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森本徹 1991, 1992).

V. 조사(造寺)·조탑(造塔)신앙과의 관련성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는 황혈식석실분과 화장묘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주지역에서 9~10세기대의 분묘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인화문토기가 소멸하고 점차 무문이나 주름무늬병과 같은 토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회를 이끌고 가던 불교계는 교종인 법상종과 화엄종이 유행하였지만, 왕경지역에서는 신인종과 법상종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제의연합사회가 조상제의 중심사회로 변화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金昌鎬 2006: 58 ~ 59). 하지만 원화 10년명(815년) 화장묘와 같이 연결고리유개호가 9세기 초까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분묘는 대체로 화장묘일 가능성이 많다.

한편 신라하대의 혼란 속에서 사찰과 암자를 중심으로 죽은 이를 위해서 탑을 세워서 복을 구하고, 가문과 집안의 재앙을 몰아내고 복을 비는 기원적 성격의 신앙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등장한 조탑신앙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소탑 77개 혹은 99개를 석탑 안에 봉안하면 재앙이 소멸하고 복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³³⁾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이에 대한 위안과 모면에 따른 현세이익적인 방편설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밀교적 의식의 등장과 다라니의 공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張忠植 1987: 23). 특히 불탑의 중수와 소탑 안에 다라니를 넣고 단을 지으면 그 복으로 단명한 사람은 목숨이 늘어나고 병이 있는 자는 쾌차되며, 삼악도(三惡途)의 업보를 영원히 없애는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張忠植 1987: 25).

따라서 다라니경에 의한 조탑사상은 곧 개인에게 복을 주는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은 9세기 대에 조성된 여러 석탑들의 사리구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기복석탑(祈福石塔)의 유행, 사원의 원당적 성격, 국왕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창건된 가람이 국가안태와 같은 소원을 내세우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보다 일족일문(一族一

門) 내지 개인의 양재기복(禳災祈福)에 맞춰지면서(張忠植 1987: 40), 화장묘에 대한 제례행위 역시 무덤에 대한 직접적인 제사보다는 사찰을 통한 간접적인 제사로 옮겨지는 모습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최치원이 쓴 ‘해인사 길상탑지’이다. 이 탑지는 신라 진성여왕대의 혼란한 가운데 도적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56명의 망자(亡者)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해인사의 별대덕(別大德) 승훈(僧訓)이 세운 길상탑에 봉안된 것³⁴⁾으로,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도적들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한 전쟁 등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 탑을 세우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소탑 등을 비롯한 사리구가 봉안³⁵⁾되었음을 알 수 있다(李弘植 1968).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신라석탑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성격, 즉 망자에 대한 추복 및 일문(一門)의 양재기복(禳災祈福)과 같은 성격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9〉 참조).

그러므로 9세기 신라사회에 있어서 석실분 등의 분묘조성은 일부에 한정되지만, 장골기를 사용한 화장묘는 지방에까지 보급되면서 계속 축조가 된다. 하지만, 화장의 대부분은 장례를 한 후 장골기를 사용하지 않고, 산과 들에 산골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장골기의 사용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신라석탑 사리구의 기복내용

번호	사 리 구	기복 내용
1	葛項寺 石塔記 (758년)	業以成在之
2	法光寺 石塔誌 (846년)	建兼脩治. 願代代壇越, 生淨土, 今上福命長遠
3	閔哀王石塔 舍利盒記 (863년)	若夫 聖教所設, 利益多端, 雖有八萬四千門, 其中聿鎖業障, 廣博利物者, 無越於崇建佛圖, 禮懺行道
4	鷲樓寺 蠟石舍利函記 (867년)	已感 淨土之業, 兼利 穢國之生
5	仲和三年銘 金銅舍利器記 (883년)	昔有裕神角干, 成出生之業, 爲國之寶, 敬造此大石塔
6	海印寺 妙吉祥塔誌 (895년)	其願輪之戒道也, 大較以護國爲先, 就是中, 特用拯拔 冤橫沈淪之魂識, □祭受福, 不朽在茲

33 초팔일이나 십삼일이나 십사일이나 심오일예,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칠십칠 바퀴를 돌면서 이 다라니 칠십칠 번을 외우고, 단을 만들어 위를 깨끗이 하고 이 다라니 칠십칠 번을 쓰되,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라니를 쓰는 사람에게 향과 꽃과 음식과 의복을 이바지하고, 목욕하고 향을 바르고 향을 풍기어 공양하며, 혹은 칠보로 보시하고 힘을 따라서 보시할 것이니라. 쓴 주문은 탑 속에 넣고 그 탑에 공양하며, 혹은 진흙으로 작은 탑 칠십칠개를 만들고 주문 한 벌씩을 탑 속에 넣어 공양할 것이니라. 이렇게 법대로 행하면 명이 짧아 죽을 이는 목숨을 증장하고, 모든 업장과 나쁜 갈래에 떨어질 업이 모두 소멸되어 지옥 아귀 축생을 아주 여의고, 태어나는 곳마다 숙명통을 얻고 모든 소원이 만족할 것이며 칠십칠억 여래에게 착한 뿌리를 심은 것과 같을 것이니,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번뇌가 아주 소멸되리라.

佛國寺, 1966,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법보원, p.8.

34 함께 출토된 운양대길상탑기(雲陽臺吉祥塔記)에 기록된 ‘영미묘년상월(寧二卯年相月)’를 통해서 건영(乾寧) 2년(신라 진성여왕 9년, 895년 7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弘植, 1968, 『羅末의 戰亂과 僧軍』, 『史叢』 12·13합권, 高麗大學校 史學會.

35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 법화경 1부, 정명경 1부, 금강반야경 1권, 화엄 2품, 진언집록 2권, 불사리 1구, 석가여래열반동화상, 유리니소탑(瑠璃泥小塔) 99기와 77기 등 모두 176기의 소탑이다.

한편 신라 하대인 9~10세기의 사회혼란 속에서 개인의 화장묘 조성과 함께 사찰에 불탑을 건립하게 되면서, 화장묘를 대상으로 한 조상숭배에서 자신과 가족의 복을 구하고 망자의 극락왕생과 다가올 내세를 기원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석탑의 조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8~9세기 대에 들어오면서 경주남산을 비롯한 경주지역과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석탑을 조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개인(호족)의 조탑신앙에 따라서 석탑의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화장묘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석탑의 조성과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통한 조상숭배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라 하대의 혼란 속에서 무덤의 축조보다는 조탑신앙에 따른 사찰 내 법회로 장송의례가 변화되면서 사찰에서 돌아가신 부모나 가족들의 명복을 위해서, 법회나 조탑신앙 등과 같은 모습으로 공덕을 비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장골기를 사용하는 화장묘의 축조보다는 산골행위나 위패 등을 절에 안치하는 모습으로 장례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면서, 결국 장골기를 사용하는 화장묘는 사회계층 중 일부에만 한정되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시대가 내려올수록 사회혼란 속에서 고분의 축조가 줄어들게 되고, 이와 함께 망자에 대한 추복의 관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고분으로서의 화장묘는 황혈식석실분과 함께 점차 그 축조가 사라지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추모행사와 법회의 모습으로 장송의례 행위가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VI. 마치며

신라의 화장묘는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특징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왔다. 먼저 현재까지 화장묘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결과 화장묘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중국 불교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었고, 화장묘의 형태변화와 인화문 시문유무 그리고 장골기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화장묘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결과 화장묘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중국 불교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었고, 화장묘의 형태변화와 인화문 시

문유무 그리고 장골기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화장묘는 묘주의 신분에 따라서 이중형과 단독형으로 구분되며 왕경과 지방에 존재하는 화장묘는 그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장골기인 연결고리유개호는 8세기~9세기까지 존재하는데 인화문 토기의 사용기간과 문양의 시문에 따라서 사용시기가 구분된다. 특히 9세기 대의 연결고리유개호는 원화10년명 화장묘에서 알 수 있듯이 무문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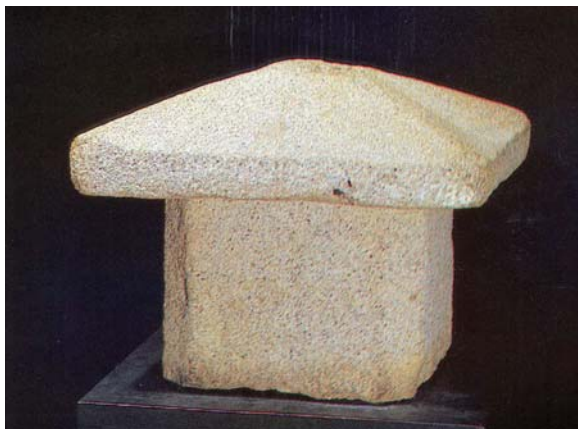
불교신앙의 성행에 따라 704년에 당에서 처음 한역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이 8세기 초에 신라로 전래되자, 신라인들은 장골기를 사용한 화장묘를 조성하거나 바닷가 또는 산에서 산골을 행하던 장례절차에서 사찰 안에 자신과 가족의 복을 구하고 망자의 극락왕생과 다가올 내세를 기원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석탑을 세우는 조탑신앙으로 사후관념과 장송의례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무덤으로서 화장묘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소멸하게 되며, 오히려 화장 후 산과 들에 산골을 하고 사찰에서 망자를 추복하는 제사를 행하는 모습으로 장례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제사의례는 석탑의 조성과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통한 조상의 추모와 개인의 발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즉 고분을 중심으로 하는 제의에서 불교라는 종교에 귀의하고 사찰과 탑 그리고 불상과 같은 신앙대상을 만드는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결과 분묘로서의 화장묘가 가지는 의미는 점차 소멸하게 되며, 오히려 화장 후 산과 들에서 산골행위를 한 후 사찰에서 망자를 추복하는 제를 행하는 형태로 장례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대에 들어오면서 경주남산을 비롯한 경주지역과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석탑을 조성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개인(호족) 또는 집안(문중)의 원찰(願刹)의 조성과의 조탑신앙(造塔信仰)의 확대에 따라서 석탑의 조성이 급증하였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매장된 화장묘가 가지고 있던 제의적 의미가 석탑의 조성과의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통한 조상의 추모와 개인의 발복을 비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결과적으로 황혈식석실분이나 화장묘와 같은 고분조성이 점차 소멸하게 된 원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사진 1〉 경주 출토 연결고리유개호



〈사진 2〉 경주 출토 연결고리유개호



〈사진 3-1〉 경주 조양동 화장묘 석함



〈사진 3-2〉 경주 조양동 화장묘 장골기



〈사진 4〉 경주 남산 배리출토 장골기



〈사진 5〉 원화10년 명화장묘 장골기



〈사진 6-1〉 경주 화곡리 화장묘 장골기



〈사진 7〉 염거화상 탑지석



〈사진 6-2〉 경주 화곡리 화장묘 출토 소조십이지상

참고문헌

〈보고서〉

- 有光教一, 1937,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 『昭和七年度 古蹟調査報告』第二冊, 朝鮮總督府.
- 姜昞希, 1994, 『晉陽 武村里 加耶墓』, 國立晉州博物館.
-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90, 『慶州龍江洞古墳』
- 金吉雄 外, 2004, 「學校 學生福祉會館敷地內遺蹟 I」, 『錫杖洞遺蹟IV』,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 金相冕, 1990, 「清道 沙村里遺蹟 發掘調査報告」, 『考古學誌』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皇南洞 新羅建物址』-194-11·12番地 大陵園化粧室 新築敷地-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05, 『慶州隍城洞石室墳』-906-5番地-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07, 『新羅古墳 基礎學術調査研究 I ~ IV』
- 국립경주박물관, 「慶州 東川洞 收拾調査 報告」, 『국립경주박물관연보』-1994년도-
- 建國大學校 博物館, 1994, 『忠州 丹月洞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建國大學校 博物館, 1995, 『忠州 丹月洞古墳群 2次 發掘調査報告書』
-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1996, 『錫杖洞遺蹟』
-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2002, 『隍城洞古墳群』
- 李在賢, 2002, 『金海大清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 鄭良謨·李建茂·崔鍾圭, 1984, 『傳閔哀王陵 周邊 整備報告』, 國立慶州博物館·慶尙北道 月城郡.
- 奈良文化財研究所, 1989, 『平城京右京八條一坊十三坪·十四坪發掘調査報告』奈良文化財研究所 學報 第46冊.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4, 『平城京出土 古代官錢集成 I』奈良文化財研究所 史料 第64冊.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8, 『奈良文化財研究所 紀要』

〈도 록〉

- 國立慶州博物館, 1996, 『國立慶州博物館』(日本語版)
-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新羅人の 記録과 筆跡-
- 국립중앙박물관, 2003, 『特別展 統一新羅』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발굴유물특별전』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編, 1979, 『日本古代の墓誌』, 飛鳥資料館.
- 飛鳥資料館, 2008, 『キトラ古墳壁畫十二支-子丑寅』飛鳥資料館 圖錄第48冊.

〈단행본〉

- 佛國寺, 1966,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법보원.
- 張忠植, 1987, 『新羅石塔研究』, 一志社.
-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 해안.
- 홍보식,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연구논문(국내)〉

- 姜仁求, 1979, 「中國地域 火葬墓研究」, 『震檀學報』 46·47, 震檀學會.
- 姜奉遠, 2005, 「신라시대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新羅文化』 25,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金英夏, 1987, 「金海 進禮 출토의 十二支神이 새겨진 石棺」, 『古文化』 第, 31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金昌鎬, 2003,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사의 시대구분」, 『仁荷史學』 10, 仁荷歷史學會.
- 金昌鎬, 2006, 「신라 橫穴式石室墳의 등장과 소멸」, 『新羅史學報』 8, 新羅史學會.
- 金鎬詳, 2003, 「慶州李氏 始祖降臨址의 再檢討」, 『慶州文化』 9, 慶州文化院.
- 金鎬詳·金宰賢, 2005,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骨分析」, 『國邑에서 都城으로』-新羅王京을 중심으로 -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第26輯,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학교 국사학과.
- 石秉哲, 2006,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石秉哲, 2007, 「경주지역 新羅 火葬墓에 대하여」, 『新羅史學報』 9, 新羅史學會.
- 李根直, 2006, 『新羅 王陵의 起源과 變遷』,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東憲, 2008, 「印花文 有蓋□ 研究」-慶州地域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李熙濬, 1992, 「慶州 錫杖洞 東國大 區內 出土 藏骨器」, 『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 鄭吉子, 1980, 「新羅藏骨容器研究」, 『韓國考古學報』 8, 韓國考古學會.
- 鄭吉子, 1988, 「中國高僧傳을 통해 본 佛僧의 葬法」, 『嶺南考古學』 5, 嶺南考古學會.
- 鄭吉子, 1989, 『新羅時代의 火葬藏骨用土器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崔夢龍, 1985, 「春川中島와 義城塔里 出土人骨; 世襲身分制社會의 反影」, 『閔錫泓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 韓炳三, 1979, 「統一新羅의 土器」, 『世界陶瓷全集』 17 -韓國古代-, 小學館.
- 홍보식, 2004, 「통일신라의 장·묘제」, 『統一新羅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第28回 全國大會, 韓國考古學會.
- 홍보식, 2005,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韓國上古史學會.
- 홍보식, 2007a, 「신라의 화장묘 수용과 전개」, 『韓國上古史學報』 第58號, 韓國上古史學會.
- 홍보식, 2007b, 「통일신라의 화장묘 造營層과 地方 擴散」, 『考古廣場』 創刊號 -故 宋桂鉉·金賢 先生 追悼集-, 釜山考古學研究會.

<연구논문(해외)>

- 齋藤忠, 1936, 「新羅火葬骨壺攷」, 『考古學論叢』 第2輯. (『新羅文化論攷』 吉川弘文館 1973 再收錄)
- 森本徹, 1991, 「火葬墓と火葬遺構」, 『大阪文化財研究』 第2號, 大阪文化財センター.
- 森本徹, 1992, 「火葬墓と火葬遺構2」, 『大阪文化財研究』 第3號, 大阪文化財センター.
- 森本徹, 1998, 「韓國における初期火葬墓の研究」, 『青丘學術論叢』 14, (財)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宮川禎一, 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紋土器の變遷」, 『高井悌三郎喜壽記念論集 歴史學と考古學』
- 宮川禎一, 1989, 「新羅連結把手付壺の變遷」, 『古文化談叢』 20(中), 古文化研究會.
- 宮川禎一, 1993, 「新羅印花文道器の劃期」, 『古文化談叢』 30(中), 古文化研究會.
- 宮川禎一, 2000, 「新羅印花紋土器の分析」, 『朝鮮古代研究』 2, 朝鮮古代研究刊行會.

도판목록

- 사진 1·2. 인화문토기 장골기(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 사진 3-1·2. 경주 조양동 화장묘 석제외함 및 장골기(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 사진 4. 경주남산 배리 출토 화장묘 장골기(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 사진 5. 원화10년명 화장묘 장골기(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 사진 6-1·2. 경주 화곡리 화장묘 장골기 및 토제십이지신상(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 사진 7. 염거화상 부도답지석(국립경주박물관, 1996. 『국립경주박물관』 전제)

Investigation on the Correlation of Cremation and Buddhism in United Shilla-Era

Focusing on Religious Acts of Building Temples and Stupas

Cha, Soon Chul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 August 2008 / Revised : 25 September 2008 / Accepted : 10 October 2008]

Abstract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about Shilla's cremate grave, in the process of importing the cremate grave, there has been correlation with Chinese Buddhism,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mentions about the change of the grave, Yinwha(Stamp) patterns and its existence, an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ssels to contain the bones.

The cremate grave is categorized into two-parts type and mono-type, depending on the dead person. The cremate graves that are in local areas such as Wang-Gyeong, show difference in types. The typical vessel to contain the bones, called "Yeongyeol Gori Yoogaeho" is again proved to have existed from A.D 8c. ~ A.D 9c., judging from the Yinwha pattern stamp's existence. Yet, the Yeongyeol Gori Yoogaeho from 9th century used the patternless pottery, also seen from the Won-wha 10 yeon-myeong cremate grave.

Due to the prosperity of Buddhism, when the "Mukuchonggwang Taranikyong(Sutra)", translated into Han language in 704 at Dang, was imported into Shilla, the funeral ceremonies of Shilla people changed from making cremate graves with vessels or scattering the bones in oceans, into building stupas in temples with hopes and wishes to bring oneself and family's fortune and the next life of the dead. As a result, the meaning of "Grave" disappeared for the cremate graves, and rather the ceremony changed into scattering bones and wishing fortunes for the dead person. In other words, the ancestor-worship ceremony which was focused on the tomb changed into commemorating the ancestors and wishing individual fortunes by the religious assembly in temples and the building process of stupas. In conclusion, this social change was the cause of the extinction of stone chamber with tunnel entrance and the tombs such as cremate grave.

Keywords : Cremate grave, Vessels to contain bones, idea of building stone stupas, Mukuchonggwang Taranikyong(Sutra)